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다비드 테살로니카의 수사

마태오 제1주일 / 모든 성인들의 주일

성 아리스토폴리스 사제순교자,

성 아그리피나 순교자

제8조, 조과복음 1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8조 찬양송 / 82, A 218

· 주일 입당송 / 14, A 42

· 모든 성인들의 주일 찬양송 / 269, B 341

· 성당 찬양송

· 모든 성인들의 주일 시기송 / 269, B 341

· 사도경:히브리 11,33-12,2 / 269, 봉독서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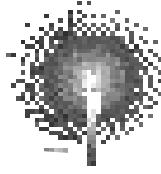
· 복음경:마태오 10,32-33, 37-38, 19,27-30 /
108, B 34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다비드 테살로니카의 수사

성서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작은 돌팔매로 거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의 성인들의 전기를 통해 교회에서 6월 26일 축일로 기념하는 테살로니카의 성 다비드(다윗)(5~6세기) 수사의 삶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성 다비드 수사는 육신이 영혼에 종속될 수 있도록 기도과 금식을 통해 끊임없이 수행하여 하느님의 힘

을 얻었고 이로써 사람들에게 경이로운 본모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수행과 승리는 지상에선 참으로 보기 드문 것이었습니다. 이 희생들은 하느님께 바치는 그 어떤 것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듯, 그 희생은 우리 육신을 산 제물로 바치는 예배입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불법하고 불의한 이 땅을 의로움으로 적시고, 수도성인들의 눈물은 온 세상의 죄를 씻어냅니다.



그리스도를 깨워라!

제자들은 사나운 바람에 겁을 먹었습니다. 배에는 물이 들기 시작했고, 시간이 갈수록 침몰 위기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잔뜩 겁에 질려 주님을 깨우며 큰 소리로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루가 8:24)라고 소리쳤습니다. 그후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사나운 폭풍은 멈추고 바다는 고요해졌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제자들처럼 여행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거친 바다를 향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바람과 성난 파도는 우리의 영혼의 배를 침몰시키려고 위협합니다. 매일 유혹, 장애물, 병, 고통, 고난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경우 혼자이고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넘실대는 절망의 파도와 사투를 벌입니다.

우리는 큰 위험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제자들처럼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잠들어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각자 생각해봐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주무시는지 아니면 내 안의 예수님께서 주무시는지?’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주무시지 않는

다면’ 그 많은 폭풍우 속에서 나를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공황 상태의 나를 잡아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내면의 안정을 얻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지 않고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심을 알고 안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말해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 어려움과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사나운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깨워야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쳐야 합니다.

삶이라는 바다의 사나운 파도, 위험, 깊은 바닷물이 우리를 공포에 빠지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하고 물에 빠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나약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잠들어계신 그리스도를 깨운다면, 우리의 주님의 권능과 현존을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 내면은 ‘고요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대주교





거룩한 성찬예배에 대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깊은 인격적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성찬예배에서 나누는 친교에 의해서이다. 밀란의 대주교 암브로시오스 성인(4세기)은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를 마셔라, 그분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마셔라, 그분은 물이 솟구쳐 나오는 바위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마셔라, 그분이 생명의 샘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마셔라, 그분은 하느님의 백성에게 기쁨을 가져오는 강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마셔라, 그분은 평화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마셔라, 그분의 몸에서 생수의 시냇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마셔라, 그리고 너를 구원하는 그분의 피를 마셔라.
그리스도를 마셔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마셔라.”

영국의 신비가이며 영적 저술가인 노르위치의 줄리안(1342-1416)은 예수님을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로 비유하였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빨아먹도록 젖을 준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머니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먹이신다. 우리가 성찬예배에서 그분의 몸을 먹을 때 이런 친절함은 최고의 성취를 이룬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음식은 생명 그 자체이며, 따라서 그 음식이 우리를 더 튼튼하게 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 아타나시아



인천 성 바울로 성당의 축일을 축하합니다

6월 29일(토) 인천 성 바울로 성당 축일을 축하합니다. 하느님의 축복과 성 바울로 사도의 중보로 모든 교인분들이 영적 신앙생활에 정진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 나가길 기원합니다.

소 식

대교구

■ 여름 수련회

올해도 여름 수련회(English Camp)가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에서 열립니다. 신데즈모스 수련회는 7월 26일(금)~28일(일), 초등부 중등부 수련회는 7월 29일(월)~8월 4일(일), 고등부 수련회는 8월 4일(일)~8월 6일(화)에 있을 예정입니다.

유익하고 재밌는 프로그램과 영어 수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영적 신앙생활에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거룩한 사업인 수련회에 부모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성당 사무실로 오늘 14일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초·중등부 15만 원, 고등부 5만 원, 신데즈모스 5만 원입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봄 음식 축제 결산

지난 6월 16일 오순절 주일에 성찬예배 후 서울 성 니콜라스 주교좌 대성당 앞 마당에서 국제 음식 축제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을 비롯하여,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루마니아, 그리스,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의 정교인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더 넓은 지역의 한국 사람들이 축제에 참석하였습니다. 민족의 구별 없이 모든 정교인들이 합심하여 축제를 여는 모습은 특히, 정교인이 아닌 한국 사람들에게 정교회의 하나 됨을 증언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음식을 준비해주신 모든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열정을 가지고 축제를 준비하고 운영하고 협조해준 신데즈모스 청년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 성모 희보 성당

■ 여름 수련회

올해 여름 수련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초·중·고등부 : 7월 26일(금)~28일(일)

· 신데즈모스 : 8월 15일(목)~17일(토)

영적으로 유익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가비는 각각 5만 원입니다.

주간 예식

- 6월 24일(월) ▷ 세례자 요한 탄생 축일
- 6월 29일(토) ▷ 성 베드로와 성 바울로 사도 축일
오전 9시: 축일 조과, 성찬예배

